

해남·진도지역 백수피해 확산

〈알곡이 차지 않는 벼〉

강풍·해일로 절반 이상 '쭉정이 벼' 전락 농가 "올 농사 망쳤다" 수확량 급감 우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잇따라 전남지역을 강타하며 올해 전남지역 벼 농사에 비상이 걸렸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릴레이 태풍으로 인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에서 백수(白穗=벼 이삭마름)와 열해(熱害), 쓰러짐(도복=稻覆) 등 큰 피해가 났다.

2일 현재 전남도가 잠정 집계한 피해면적은 ▲백수와 열해가 4만2434ha ▲물 잠김 7566ha ▲쓰러짐 6569ha 등 모두 6만3637ha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벼 식부면적 17만2100여ha의 36.9%에 달하는 면적이다.

우선 해남과 진도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벼 이삭이 하얗게 말라 죽는 백수 현상이 심각하다. 이삭이 패는 시기에 벼가 심한 강풍과 바다의 해일 등으로 수분을 잃고 말라 죽어 알맹이 없이 쭉정이만 남아 버렸기 때문이다.

백수피해는 시·군별로 ▲해남 1만3920ha ▲함평 5571ha ▲고흥 5129ha ▲진도 5700ha ▲영광 2500ha 등

에서 발생했다. 전원에서 태풍이 휩쓸고 간 신안지역은 전체 9560ha 가운데 80~9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은 벼 재배면적의 60%가 넘는 1만3000여ha에서 백수 현상이 나타나 800여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3000여ha는 90% 이상 농사를 지어도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며 "올 농사가 태풍으로

모두 헛것이 됐다"고 망연자실해했다.

수확을 한 달여 앞둔 진도지역 역시 5700ha 가운데 태풍으로 사들만에 3000ha의 논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다.

해남군 관계자는 "백수현상이 점차 확인되는 만큼 각 읍면별로 정확한 피해조사와 함께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 재해 조사요령을 시달하며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 강구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남도 관계자는 "백수현상은 바람을 맞은 뒤 1주일 정도가 지나야 피해가 정확히 확인되는 만큼 피해면적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현영·박희석기자 dia@



농협 '낙과 팔아주기'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해 입은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낙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낙과 판매 직거래 장터는 광주 KT 정보센터 광장, 하나로클럽 남악점, 광주시청 광장, 농협 광주유통센터 등 4개소에서 진행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완도 전북 피해액만 800억대

양식시설 30~40% '쭉대밭' ... 5만5000칸 유실

전국 생산량의 81%를 차지하는 완도지역의 전북 양식장 태풍피해가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면서 전북 가두리 양식 시설 5만5000칸이 유실되고, 전북이 죽어 814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양식시설 137억원, 전북 유실 및 폐사 67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태풍으로 전체 양식 면적의 30~40%가 피해를 봤다.

하지만 완도 전북의 70%를 생산하는 노화도의 전북 피해가 우려했던 것보다 적어 추석 전북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군은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에 돌입, 피해가 난 전북 가두리 시설 철거 등 모든 행정력을 피해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전북 가두리 피해 시설물 처리비 지원, 가두리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 등 수산분야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목포시 전직원 휴일 반납 접태풍 피해 복구 비지땀

시장 등 500여 공무원 침수지역 쓰레기 수거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한반도를 휩쓸던 시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외유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종득 목포시장도 태풍 피해 현장 점검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목포시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이 위력을 떨치던 지난 28일 오전 8시 20분께 용당동 홈플러스 맞은편 모텔앞 인도에 나뒹굴고 있는 간판 등을 치우기 위해 시장 관용차를 비롯한 차량 3대가 멈춰선 순간 갑자기 모뎀 옥상에 쌓여온 간판이 강풍에 날아와 이들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수확차량인 소나타 차량의 뒤쪽 유리창이 박살나고 지붕이 구겨졌으며 기사는 활과상을 입었다. 다행히 시장 관용차는 사고차량 바로 뒤에 위치해 위기를 모면했다.

이날 정 시장은 오전 4시 55분 재해대책본부를 나와 목포대교,

삼학도 요트마리나, 자유시장 공사현장, 남해 배수펌프장, 신흥동 절까지, 2·3호 광장 등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서산동 보리마당 일대에서는 한전 목포지점장을 직접 불러 정전된 가구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직원 500여명과 함께 강풍으로 떨어진 가로수 가지와 나뒹굴 50여를 수거했다.

이어 30일에는 태풍 덴빈으로 상동 버스종합터미널이 침수되자, 목포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과 함께 현장에 나와 직접 진두지휘 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정 시장은 휴일인 1일과 2일에 도 전 직원 비상근무를 내려 쓰레기 수거와 침수주택 청소정비, 농경지 세 벼수거, 공공 시설보수 등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나주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일손돕기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30일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나주 흥고추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 일손돕기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

박재순 사장은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는 재해예방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태풍에 방조제 제방과 석축 등 400여m가 유실돼 12억 여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공사는 사고발생후 분사 시설안전처 기술 인력을 투입해 원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중장비 20대를 동원해 23시간 만에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박재순 사장은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는 재해예방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도 약용자원 공동브랜드 '초록은' 개발 지역중소 시장 진출 돕는다

전남도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의 하나로 추진중인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사업단이 공동브랜드인 '초록은'을 개발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의 고부보를 마련했다.

공동브랜드 개발은 그동안 제각기 다른 브랜드로 상품을 출하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용자원 RIS사업은 2010년 전남도와 목포대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남 최대의 약초재배지인 화순군과 무안군의 지원을 받아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단은 돼지감자차, 음금환, 숙취해소 음료, 한방차 등 10여개의 약용자원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해왔다. 특히 화순군의 '작약'과 '목단'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하는 성과도 올렸다.

송경일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성공적 RIS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우수제품 개발,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남 火電 유치 무산 군의회 주민청원 부결

해남 화력발전소 유치건이 결국 무산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화력발전소 유치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청원을 표결 끝에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찬성 4, 반대 1로 유치청원서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화력발전소 건설은 현행법상 지방의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했다.

유치 추진위가 1만여 명이 서명한 화력발전소 유치 주민청원서를 군의회에 최근 제출했으나, 군의회가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 2차례 반대를 한 만큼 더 이상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가발

大山프리모가발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평문 고객에게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백1**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